

싱가폴 해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길태*	학과	보건행정경영학과
파견국가	싱가폴	파견대학	PSB 아카데미 시티캠퍼스
파견기간	2016. 1. 6. ~ 1. 28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SB 아카데미 학교는 Tiong Bahru역 근처에 있습니다. 기숙사에 거리는 걸어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의 대학교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지만 싱가포르의 크기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65일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확실히 교실 에어컨 시설은 좋았습니다.
수업	수업은 총 4명의 선생님이 진행하셨고, 취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취업관련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첫 주에 진행된 수업은 각자 소개와 이론 중심의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대학생이 하기에는 유치한 수업이 있어서 학생들이 흥미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몇 선생님의 수업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 혼자만의 시간(?)처럼 수업을 하셔서 지루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진행된 job interview, cover letter, resume 등 실질적으로 해외취업에 관련된 수업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강의준비도 잘하셔서 차질없이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별도로 진행된 Activity는 총 3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포장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기업체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 도서관,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를 갔다왔습니다. 기업체 방문은 제가 원하는 싱가포르의 현지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곳은 좋았지만 개인시간에 방문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쉬웠습니다. 기업체를 위주로 방문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날씨는 동남아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습하고 덥습니다. 그리고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산은 필히 챙기고 다녀야 합니다.
안전	싱가폴은 안전이 정말 좋다고 듣고 갔는데, 실제로 가니 정말 좋습니다.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소	처음에 OT때 숙소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했지만, 막상 가니 숙소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세탁기와 싱크대, 냄비,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요리도 할 수 있고, 따뜻한 물도 잘 나왔습니다.
식사	저는 학교 식당보다는 현지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쓰는 특이한 향신료 때문에 고생한 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교통	싱가포르 교통비가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통학할 때는 주로 걸어다녔습니다. 숙소에서 PSB 대학까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걷기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707,4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교통비	\$30	
식비	\$350	
기타	\$150	기념품, 관광지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1) 음식

싱가포르는 물가가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식비로 돈이 많이 소비됩니다. 때문에 기숙사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에 냄비가 있지만 후라이팬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2) 날씨

제가 갔을 때 우기여서 비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때문에 출국 전에 무조건 우산을 챙겨야 합니다.

3) 관광

싱가포르가 땅은 좁아도 구경할 곳은 많습니다. 출국 전에 가고 싶은 곳을 꼭 정해서 최대한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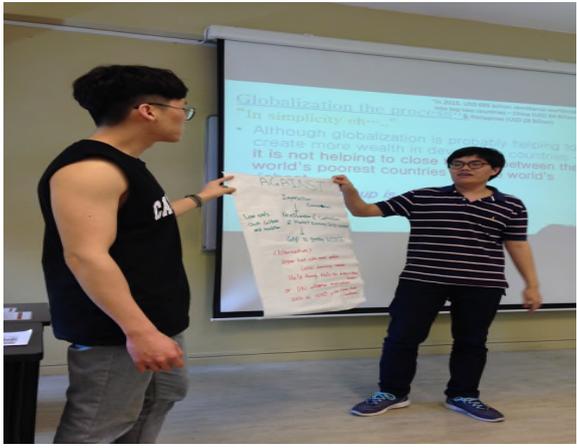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현재 4학년이고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여서 사실 처음엔 갈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3주 동안 있으면서 가장 확실히 배운 것은 취업의 길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한국에서만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눈을 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영어 실력이 한없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제 인생의 직업을 찾을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싱가포르 기숙사</p>	<p>수업 중 발표</p>
	
<p>싱가포르 동물원</p>	<p>싱가포르 야경</p>
	
<p>싱가포르 USS</p>	<p>Ngee key 선생님</p>